

#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9 권 47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mailto: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62)	봉헌 ( 213)	성체 (165)	파견 (270)
---------	---------	-----------	----------	----------

제1독서 | 이사 2,1-5

화답송 | 시편 98(97),1,2-3 그리고 3대다-4,5-6

-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뿐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제2독서 | 로마 10,9-18

복음환호송 | 마태 28,19,20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음 | 마태 28,16-20

###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0/20	이 그레이스	김 유스티나/고 안나	박 다니엘
10/27	이 그레이스	김 유스티나/고 안나	박 다니엘
11/3	유 요한	김 유스티나/고 안나	박 다니엘
11/10	이 그레이스	김 유스티나/고 안나	박 다니엘

영어독서: 손 데레사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95	\$	\$42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공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김 마론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9/28	김 마론/ 김 헬레나	11/2	유 요한/유 마리아
10/5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11/9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10/12	손 아놀드/ 손 쟈마	11/16	홍 마르코/ 홍 아녜스
10/19	이 글라라/ 장 글라라	11/23	김 요아킴/ 고 안나
10/26	박 벨라데타/ 정 루시아	11/30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 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

-신달자 엘리사벳 | 시인-

여중학교 시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의식주(衣食住)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무엇이 가장 으뜸이냐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50명이 넘는 학생 중에 제가 가장 먼저 큰 소리로 “집이요!” 하고 외쳤습니다. 좌중이 조용하다가 갑자기 웃음을 쏟아 냈습니다. 민망했던 기억이 있지만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음식도 옷도 소중하지만, 왜 그런지 가슴 안에는 늘 좋은 집이 그리웠습니다. 음식은 나물만 먹어도 좋을 것 같고, 옷은 적당히 저렴하게도 멋을 부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은 제 능력으로 척척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서 꿈속에서 상상의 세계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지으신 한옥은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영화를 보아도 좋은 집이 나오면 내용보다 집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혼 후도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늘 불만이었고 꿈은 커져만 같습니다. 나이란 꿈도 축소시키는 힘을 가졌는지 점점 집에 대한 꿈이 줄어들고 있을 때, 생각지도 않게 집에 대한 꿈을 이루었습니다. 새벽기도마다 한마디씩 후렴으로 넣은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집일까요? 딸 세 가족과 함께 사는 집입니다. 딸 셋과 사위 셋, 손주 셋과 저까지 열 명의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을 지었습니다. 물론 한 지붕 안에 집은 다른 가족이지요. 이만하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이 아닐까요?

사실을 말씀드리면 집들은 많이 불편합니다. 평수도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성체조배는 11 월 7 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첫번째 일요일 오후 7 시 30 분

임원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원회의는 11 월 3 일 입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수요일 오후 8:00

기도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6351 Aker Rd. #7, Bakersfield. CA 93313

성경공부: 매주 주일미사 후 (둘째 주 제외)

매주 미사후 친교실에서 성경공부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소 공동체 모임: 매주 둘째 주일 미사 후 친교실

변경: 본당의 견진 교리반과 친교실 사용 중복 문제로 인하여 그동안 셋째 주일에 가졌던 소 공동체 모임을 이번 달 부터 둘째 주일로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소 공동체 모임은 11 월 10 일 입니다.

10 월 목주기도성월

목주기도 성월은 개인과 가정성화, 인류구원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목주기도를 바치는 달입니다.

미사 시작 30 분전에 목주기도 5 단을 다함께 바칩니다.

넓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니라면 이런 불편을 감수하라고 하느냐며 얼굴을 붉힐 법도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것을 강요하면 저는 엄마도 아니지요. 가톨릭 신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딸들은 자기 집을 챙기면서도 엄마의 불편을 먼저 생각해 줍니다. 딸들은 새 집에 대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사위들이 마음을 함께 모아 준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차장이나 계단에서 만나면 환하게 웃습니다. 우리는 서로 비밀번호도 모릅니다. 지킬 것은 지키며 예의를 지킵니다. 지하 패밀리 룸에서 서로 차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환담도 나눕니다. 와도 좋고 안 와도 좋습니다. 자유가 첫째 조건입니다. 전 복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벽 너머에 제 딸들의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들이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면, 그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모두 하느님의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벅칩니다. 이만한 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제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생의 가을에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이라고 감히 말합니다.

집을 지을 때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손해 본 만큼 내 언니나 동생에게 이익이 간다고 생각하면 무엇이 아쉽겠는가”라고 성모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만 기억하라고요.

주님, 부족하고 못난 저에게 주신 이 엄청난 선물에 온 몸을 다해 감사기도 드립니다.